



‘신대륙의 크래프트 와인’

떼루뇨 소비뇽 블랑

Terrunyo Sauvignon Blanc

지역	칠레) 아콩카구아) 카사블랑카 밸리		
포도품종	소비뇽 블랑 100%		
알코올	13.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0-13℃		
테이스팅 노트	녹색빛이 살짝 감도는 옅은 옐로우 컬러로 백도 및 상큼한 감귤류의 향과 함께 오크숙성을 통해 얻어진 고소한 노트류의 향까지 다양한 향을 가진 와인이다. 입안에서 다시 한번 풍부한 과일의 향과 함께 신선한 산도가 기분 좋은 와인으로 마지막 미네랄 터치가 와인의 구조감을 받쳐준다.		



제품설명



신대륙의 크래프트 와인. 엄격한 분석으로 떼루아와 포도품종을 선정, 와인메이커의 장인정신을 담아낸 와인이다. 카사블랑카 밸리에 위치한 로스 볼도스(The Los Boldos) 빈야드는 태평양과 오직 15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잦은 안개와 서늘한 기후로 소비뇽 블랑 품종이 천천히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이다. 6개월간 스테인레스에서 숙성하여 과실 자체의 풍미를 한껏 살려냈다. 2019빈티지부터 시작된 크래프트 프로젝트는 한 병의 와인을 만들기 위한 와인메이커의 장인정신을 레이블 이미지에 담았다.

수상내역



2020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1점
 2019빈티지 데스콜차도스 Descorchados 96점
 2019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1점

와이너리



1883년 설립된 콘차이토로는 남미의 대표 와이너리로 현재 전세계 147개국에 수출 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두하는 와이너리이다. 1997년 프랑스 특급 와인의 자존심인 샤토 무동 로실드의 바롱 필립 가문과 조인트 벤처로 알마비바를 출시하여 칠레 울트라 프리미엄 와인의 장을 연 콘차이토로는 10,800헥타르가 넘는 빈야드를 칠레 뿐 아니라 미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또한 세계적인 전문지 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존경 받는 와인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최고의 와이너리에 등극하였다. 콘차이토로의 아이콘 와인인 돈 멜초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전문지 100대 와인에 총 8번 선정되어 칠레 와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플래그십 와인 까르민 데 페우모는 칠레 와인 중 로버트 파커 최고 점수 97점을 받은 와인이다. 이렇듯 콘차이토로는 최고급 와인부터 트리오, 프론테라 같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와인까지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와이너리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